

“혹시...” 화장실 몰카 공포

‘몰카’(몰래 카메라) 범죄가 잇따르면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여성 화장실을 노린 몰카범행이 기승을 부리자 자치단체, 대학가, 경찰이 대응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카메라 촬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192건, 2016년 119건, 2017년 105건 등 해마다 100건을 웃돈다. 검거 인원은 2015년 194명, 2016년 115건 2017년 107명이었다.

주로 몰카 범죄가 발생하는 곳은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학가 화장실과 공영화장실, 지하철역 등이다.

지난 2월 회사원 A(36)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3시40분께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들어온 여성 3명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결국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3월7일에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한 학생이 여자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화장실 이용한 여성이 촬영된 동영상 확인 후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현재까지 붙잡지 못했다. 용의자가 색출되지 않자 여학생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3월 전남대서 발견 이후 여성들 불안감 확산 대학·경찰 근절 골머리 몰카 렌즈 막을 수 있는 ‘마그미 스티커’ 배포도



광주 남부경찰이 만든 도촬 방지 스티커.

탐지기를 이용했다.

남부경찰은 몰카 근절을 위해 묘안(?)을 내놓았다. 화장실 등 몰카가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마그미 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

남부청과 협업해 제작한 스티커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불법촬영이 의심이 되는 구멍을 발견하면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경찰은 공용화장실 25곳에 스티커를 비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몰카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에 출동기로 했다.

신남수 광주남부경찰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화장실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몰카 수법과 장비도 정교해지고 설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도촬”이 의심될 경우 먼저 렌즈를 화장지 등으로 먼저 가린 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머그컵·텀블러 사용하세요”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27일 한 커피판매점에서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지자체는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위반 업소가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당원 명단 유출 의혹’ 이용섭 당선인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광주경찰 “증거 불충분” 일각선 부실수사 지적도

경찰이 유출된 당원명단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이 당선인을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당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전 조직국장 류모(57)씨 등 2명, 이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당선인의 비서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당선인이 유출된 당원명부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불기소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당선인이 비서 이씨가 신년 문자 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 당선인이 당원명단 유출을 알고 있었거나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비용도 이 당선인이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류씨 등 관련자 3명이 독자적으로 이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당원명단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부실수사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6개월 여 수사를 하고도 이 당선인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못한 데다 낙장 압수수색과 소환 등 애초부터 수사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민주당 당원에게 이 당선인 명의로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신년 문자 메시지가 무더기 발송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소환 일정을 미루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이 당선인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와 이씨가 이 당선인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당선인도 지시하거나 묵인,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이들의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검찰과 협의해 이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진 여고생 사망 용의자 행적 추적 초등생 2명 실종 연관성 수사 착수

전남지방경찰청

2000·2001년 강진군에서 잇따라 일어난 여자 초등생 2명 실종사건 등과 이번 여고생 사망사건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광주일보 6월27일자 6면)과 관련,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여고생 이모(16)양 실종·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51)씨와 2000년대 이후 강진 일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과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에서는 지난 2000년 6월15일 오후 2시께 강진읍에서 김성주(당시 8세·초교 2년)양이 하룻길에 실종된 데 이어

2001년 6월1일 오후 1시30분께에는 김하은(당시 6세·초교 1년)양이 사라져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여전히 이 2명은 흔적이거나 용의자 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을 포함해 2000년 이후 실종 상태인 전남지역 미성년자는 모두 7명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실종된 18세 미만 아동은·청소년은 33명이고, 2000년대 이후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살인사건도 7건에 이른다.

류미진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에 일어난 이양 실종·사망사건의 용의자 김씨가 전남지역 장기 실종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행적 등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세종시 수상복합아파트 화재 근로자 3명 숨지고 37명 부상

지난 26일 오후 1시 10분께 세종시 세림동 트리셰이드 수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7동 지하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7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세종경찰은 27일 시공사 관계자와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사 안전책임자와 현장소장 등 관계자 3명을 전날 밤 늦게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3시간 동안 조사하는 등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채수중 세종시소방본부장은 27일 시청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하층에서 ‘뿡’하는 소리가 10회 이상 들렸다는 시민과 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예폭사업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선봉기 날개에...세살배기 중상

27일 오전 11시45분께 완도군 소안도에서 A(3)군이 선봉기 날개에 왼쪽 손가락 중지가 찔렸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스스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집에 부모가 있었지만 미처 못 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완도해경 경비정을 타고 육지 병원으로 이송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집합수술을 받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던 중학생들 경찰서 잡혀간 까닭은?



○... 파쿠르(Parkour) 맨몸으로 장애물을 뛰어다니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심취한 중학생들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 행.

○...2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A(14)군 등 4명은 지난달 19일 새벽 1시께 남구 월산동 일대의 건물 옥상 등을 안전장비 없이 아찔하게 뛰어넘어다니는 곡예를 펼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

에 붙잡혀 견조를 침입죄로 입건됐다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벽타기, 뛰어넘기 등 파쿠르 기술을 익힌 후 이날 실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된 것과 별개로 높이 3m 이상 건물 사이를 겁도없이 뛰어 넘었다는 게 더 큰 일”이라며 혀를 꼰꼰.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